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핵심 물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
- Bloomberg: 엘런 재무장관 “건조한 미 경제는 바이든 정책 덕분”

[미국 금융]

- WSJ: 미 핵심 인플레이션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나
- WSJ: JP 모건과 골드만 삭스 수익 급등
- CNBC: 시티 그룹도 4분기 수익 증가

[뉴욕시]

- WSJ: 맨해튼 혼잡세로 교통체증 완화, 일부는 불만

[미국 생활]

- WSJ: 하버드 MBA 졸업자도 일자리 찾기 힘들어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트럼프 에너지 장관 지명자 Chris Wright “화석 연료 원활하게”

[전기차]

- Bloomberg: 2025년 이후 배터리 가격 점차 둔화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율 7%, 작년 5월 이후 최고치

[오일]

- Bloomberg: OPEC “2026년에 석유 수요 증가한다”

[미중관계]

- Bloomberg: 미국 “TSMC와 삼성은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라”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FinanceYahoo: 마이크로소프트, 기업용 Copilot Chat 출시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re Inflation Eases for First Time in Six Months

미 핵심 물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둔화

-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한다는 신호를 보낸 후에 1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낮게 상승했다.
-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4개월 연속 0.3% 상승한 뒤에 12월에는 0.2% 상승했다고 오늘 수요일 연방 노동부는 발표했다. 특히 호텔비, 의료 서비스 비용, 임대료 등이 12월 인플레이션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향후 일련의 둔화 신호를 좀 더 지켜볼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Yellen Touts Strong US Economy in Praise of Biden's Policies

엘런 재무장관 “건조한 미 경제는 바이든 정책 덕분”

- 곧 사임하는 엘런 연방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리고 과거의 성과와 비교해서 건조한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옹호했다.
- 그는 인플레이션은 인정하지만 ‘강한 고용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 그는 팬데믹 위기 후에 일상용품의 가격이 급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1조9천억 달러의 재난지원금으로 고통을 극복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WSJ: Softer Reading on Core Inflation Revives Bets on Rate Cuts

미 핵심 인플레 둔화로 금리 인하 기대감 살아나

- 오늘 발표된 핵심 인플레 지표가 예상보다 둔화됐다. 1월 핵심 소비자 물가는 당초 예상인 0.3%보다 낮은 0.2% 상승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트레이더들은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
- CME 그룹 데이터에 따르면 연준 펀드 선물은 연준이 올해 금리를 내리지 않을 확률을 어제 화요일에는 26%로 보았지만, 오늘 수요일에는 15%로 감소했다.
- 한 번 이상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35%에서 51%로 상승했다. 금리 인하는 6월에 처음 있고, 12월에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 현재 국채금리는 어제 4.78%에서 4.65%로 감소했다.

WSJ 기사

WSJ: JPMorgan Chase and Goldman Sachs Post Surging Profits

JP 모건과 골드만 삭스, 수익 급등

- 대형 은행들의 작년 4분기 수익이 급등했다. JP 모건은 순수입이 50% 이상, 골드만 삭스는 두배 이상 증가했다.
- JP 모건의 4분기 수익은 140억불로 뛰었고, 매출은 11% 증가한 422억7천만불을 기록했다. 골드만 삭스 4분기 수익은 41억1천만불로 급등했으며, 매출은 23% 증가한 138억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웰스 파고는 수익이 47% 늘어난 50억8천만불을 기록했다.
- 이는 기업 고객들이 미국 경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인수 합병 등 대규모 거래, 자금 조달, 그리고 파생 상품등의 거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은행 수익이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이다.
- 대형 기업 고객들은 데이터 센터, 주요 기술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기업 고객들이 투자 환경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은행들은 밝혔다.

WSJ 기사

CNBC: Citigroup swings to fourth-quarter profit, tops estimates on investment banking strength

시티 그룹도 4분기 수익 증가

- 시티 그룹은 4분기 순수입이 28억6천만불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의 18억4천만불의 손실을 회복했다. 시티 그룹은 2023년 마지막 분기에 사업 구조 조정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으로 인해 작년 실적이 악화됐었다.
- 한편, 시티 그룹은 2백억 달러의 자사 주식을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CNBC 기사

[뉴욕시]

WSJ: Congestion Pricing Has Eased NYC Traffic. Not Everyone Is Happy. 맨해튼 혼잡세로 교통체증 완화, 일부는 불만

- 맨해튼 혼잡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뉴욕시 교통 체증이 완화됐다. 맨해튼 60스트리트로 진입하는 차량수가 8% 줄었고, 브리지와 터널의 교통 체증 시간이 줄어들었다.
- 주차장 서비스 업체와 택시 운전기사 등의 비즈니스들은 수요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 한편 뉴저지에서 맨해튼으로 출근하는 이들은 다른 교통편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팔아야 하는지 우려하면서 추가 비용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WSJ 기사

[미국 생활]**WSJ: Even Harvard M.B.A.s Are Struggling to Land Jobs
하버드 MBA 졸업자도 일자리 찾기 힘들어**

- 미국에서 전문직 일자리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하버드 경영대학원도 자기 대학의 MBA 졸업증만으로는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
- 작년 봄에 졸업한 MBA 졸업생의 23%가 졸업 후 3개월 동안 여전히 일자리를 찾고 있다. 작년 20%보다 늘어난 것이다. 한마디로 화이트칼라 노동 시장이 둔화되고 있다. 2022년에는 3개월간 일자리 못 찾은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 이는 와튼 스쿨, 스탠퍼드, 뉴욕대학도 마찬가지다. 대학만 졸업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을 가져야 한다.

WSJ 기사

[트럼프 행정부]**Bloomberg: Trump's Pick for Energy Secretary Vows to 'Unleash' US Expansion
트럼프 에너지 장관 지명자 Chris Wright “화석 연료 원할하게”**

- 트럼프 당선인의 에너지 장관 지명자 Chris Wright가 수요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원자력 발전과 액화천연가스 생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안보는 에너지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 Wright는 풍력과 태양열 발전에 대한 보조금을 비판하고, 화석 연료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기후 변화로 인한 위협이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 Wright는 더 많은 석유 시추를 통해 에너지 가격을 줄이겠다는 트럼프 공약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전기차]**Bloomberg: Trade Wars Seen Slowing Battery Price Plunge in 2025
2025년 이후 배터리 가격 점차 둔화**

- 블룸버그NEF 분석에 따르면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 3년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 분석가들은 리튬 이온 배터리 가격을 3% 하락한 킬로와트당 약 112달러로 전망했다. 2024년에는 20%, 2023년에는 13% 하락했었다.

- 만약 트럼프가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한다는 공약을 이행할 경우 미국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가격은 1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핵심 금속 가격도 관세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Top 7%, Reach Highest Since May of Last Year

미 모기지율 7%, 작년 5월 이후 최고치

- 지난주 미 모기지율이 7%를 돌파해 작년 5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주택 시장은 계속 가격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오늘 수요일, 모기지 은행 협회 발표에 따르면 1월 10일로 끝나는 주에 30년 만기 모기지율은 10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7.09%였다. 9월 말 이후 주택 용자 비용은 거의 1%포인트 상승했다.
- 미 모기지율은 미 국채 금리를 따라간다. 어제 화요일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2023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회복세, 금리 인하 가능성, 트럼프 정책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가 계속 상승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Bloomberg 기사

[오일]

Bloomberg: OPEC Sees Steady Oil Demand Growth in First Look at 2026

OPEC “2026년에 석유 수요 증가한다”

- OPEC이 첫 번째 2026년 전망 평가에서 인도와 중국의 주도로 석유 수요 증가가 꾸준할 것이라 전망했다.
- 오늘 수요일 발표된 월간보고서에서 2026년에는 세계 석유 소비량이 하루에 140만 배럴씩 꾸준히 견조하게 증가해 공급량 증가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중국의 경제 둔화와 작년 수요 예측 실패로 OPEC의 낙관적 전망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있다. OPEC은 2024년에 6개월 연속 수요 예측을 하향 조정해 기존 예측보다 수요 예측을 47%나 낮췄었다.
- OPEC은 최근 유가를 유지하기 위해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었다. OPEC은 올해 4월부터 하루 12만 배럴씩 점진적으로 증산할 계획이다.
-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 글로벌 석유 공급이 부족해지면, OPEC이 계획대로 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미중 관계]**Bloomberg: US Aims to Tighten Flow of TSMC and Samsung Chips to China****미국 “TSMC와 삼성은 중국에 반도체 팔지 말라”**

- 미 정부가 대만의 TSMC와 삼성의 고급 반도체가 중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더 많은 규제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미국은 화웨이와 같은 중국 기업과 중국 정부가 고급 반도체를 획득할 수 있는 백도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규제 초안에 따르면 14~16나노미터 이하의 모든 칩을 미국 외 국가에 판매하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 이번 규제안은 어떤 설계가, 어떤 국가가 무역 규제 대상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수가 적은 반도체일수록 정교하다.
- 기업들은 본사와 제조업체가 미국 또는 미국의 동맹국(대만, 한국 등)에 있는지, 중국 등이 아닌 승인된 국가에 파는지를 증명하면 미국 수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FinanceYahoo: Microsoft launches Copilot Chat for businesses to boost AI adoption****마이크로소프트, 기업용 Copilot Chat 출시**

-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용 AI 에이전트 채팅 서비스인 Copilot Chat을 출시했다. Copilot은 OpenAI의 GPT-4를 사용하는 무료 서비스다. 사용자는 Copilot을 통해 시장 조사, 전략 문서 작성, 회의 준비 등 작업이 가능하다.
- 월 30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 365 Copilot에 구독하면 Teams 서비스의 통화 요약 및 필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만들기 등의 기능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회계연도에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약 8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AI 사업의 수익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FinanceYahoo 기사

[보고서]

확 낮아진 美 금리인하 기대감... '동결'에 '인상설'까지 솔솔 강한 고용지표 이후 인플레이 우려 높아, 글로벌 채권 금리 상승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다.

월가의 주요 금융사들이 금리인하 폭과 시기에 대한 전망을 줄이거나 늦추고 있으며, 올해 아예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심지어 올릴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